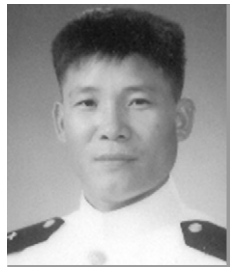


## 한국 군목제도 개혁에 대한 연구

[해군·해병대를 중심으로]



조성현 군종목사

### I. 서론

#### 1. 연구의 동기와 목적

오늘날 한국 교회의 화두는 개혁이다. “교회가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자성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느헤미야서의 중심 메시지는 바로 무너지고 황폐해진 유대의 회복 혹은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루살렘성의 무너진 성벽의 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기록하고 있

- 약력 : • 천안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과정(Ph. D.)  
• 해병대강화교회 담임목사

다(느 4:1-23). 유대 백성들에게 성벽의 재건은 매우 중요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컴퓨터의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다.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가 작동할 수 없다. 성벽의 재건 없이 유대인은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폐허가 된 유대의 성벽 재건을 통해 외적의 침입을 막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유대에 다시 정착시키는 일이었다. 느헤미야의 개혁을 원했던 하나님은 현재 한국 군목의 개혁을 요구하고 계신다.

군대교회와 군인신자와 군종장교의 개혁 없이는 복음화는 더욱 후퇴할 것이다. 장병들의 복음화를 위해 군종병과를 허락해 주셨건만 우리 군종장교들은 가족 위주의 목회와 진급을 위한 몸부림과 교단의 입김 속에 오직 군대에 오래 남아 있으려고만 하고 있다. 현 한국 군종제도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3종파의 선교와 포교의 각축장일 뿐만 아니라 개인 진급이나 행정 면에서도 그러하다. 최초에는 기독교에서 군종병과를 만들고 군목들이 매년 담당했던 각 군 군종감 및 3군을 대표하는 군종실장까지도 3종파 안배를 해야 하며 나누먹기식 행정과 실제 업무에 있어서도 타종파 눈치를 살피는 것은 물론이고 기독교, 불교, 천주교 3종파 안배에서 또 기독교 내 12개 교단끼리 치열한 물밑 경쟁으로 인하여 우수한 자원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기독교 군종장교 관리에 있어서도 교단주의로 인하여 자기 교단만 찾는 교단 이기주의가 팽배하게 작용하고 있다. 교단이 없어야 할 군대에 12개 교단이 엄연히 존재하여 교단 간의 모든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천주교는 군종

교구<sup>1)</sup>에서 불교는 조계종에 군종 담당을 두어 일원화하고 있어 군종장교 관리 및 선교와 포교 활동에 원활하게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기독교는 한국군종목사단과 육군·해군·공군 군종목사단이 있지만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한국군종목사단과 각 군 군종목사단에서는 교단주의가 팽배한 현 제도 상황에서는 원활한 군목관리와 선교정책을 추진할 수 없기에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군종목사 파송교단 협의회(12개 교단) 및 한국군종목사단과 각 군 군종목사단을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 통합하여 위상강화와 위상정립을 통하여 군종장교 선발, 교육, 관리 및 정책 개발 및 실행을 일원화해야 한다.

한국군은 3군 체제이지만 육군, 공군, 해군 등 각 군과 해병대를 따로 두고 있다.<sup>2)</sup> 해병대와 해군은 장병들이나 복제도 다르고 임무수행에 있어 성격이 다르며 복무환경도 다르다. 원활하고 활발한 해병대 복음화를 위해서는 해병대 사령부에 해병대 군종감실이 설치되어 해병대 복음화를 위해 매진해야 하겠다.

## 2. 연구 범위와 방법

- 1) 1961.11.20 군종신부단을 주교회의 산하 단체로 인준  
1966.5.12 주교회의에서 교구 신부 10%를 군종신부로 파견할 것을 결의  
1989.10.23 교황청에서 군종교구 창설과 정명조 신부 초대 군종교구장으로 임명(국내 발표 11월 11일)  
1990.2.13 초대 군종교구장 정명조 신부의 주교 서품(서울 명동성당)  
1990.9.14 한국 천주교 군종교구 유지재단법인 설립
- 2) 국군조직법 제2조 1항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먼저 현 한국 군종제도와 군목제도를 살펴보고 해군·해병대의 현재 군종활동과 상황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 군종제도의 나아갈 방향과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군종장교 선발제도의 문제점과 관리방향을 서술할 것이다.

한국 군종사와 해군 군종사를 해병대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고 군종사를 통하여 해병대 군종 부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한국 군종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며 천주교와 불교 군종제도를 살펴본 후 군목제도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한국 군목제도의 현황과 미래

### 1. 한국 군종제도의 현황

미국 선교는 남북 전쟁 이후 링컨이 노예를 해방하고 미국 군대에 군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흑인들을 포함한 비영국계 사람들 등이 청교도들의 신앙을 받아들여 전체 미국이 기독교화되었다. 개신교 개종도 역시 국가권력의 중심인 군과 통수권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우리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닌 상태로 6.25전쟁 때 미군 군목제도를 본떠 한국군에 군목제도가 들어오고 군복음화를 통한 민족복음화를 지향하여 지금 같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결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군선교의 선교사적 의미를 되새길 때다. 우리 나라 군선교는 1950년 카투사 병사가 이승만 박사에게 미군 군목이 전쟁터에서 병사들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보고 탄원서를 낸 데서 비롯된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경직 목사, 백낙준 박사, 조지 연

태를 8군 군종부장 등에게 부탁하여 인원을 모집하도록 하고 국방장관(신성모)에게 군종병과 창설을 지시했다. 당시 군종장교는 목사 약 400여 명, 신부 80여 명 등 모두 기독교인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한국사회에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군대가 조직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다. 1965년 월남파병 때 육영수 여사의 발의로 군대에 군승(법사)이 추가로 보직되면서 군목의 공석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1950년 우리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 기독교계에서 만든 체플린 제도에 승려들이 들어오더니 태고종, 천태종, 원불교까지 들어오고 제7안식교, 물본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까지 군종장교로 들어오려고 한다. 군목직책을 군무원으로 하려는 연구가 진행 중이며 한때 거론됐던 군종병과 개선 및 폐지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연구위 관계자들은 군종목사 제도를 군무원 제도로 변경함으로써 각 종파간 경쟁으로 인한 진중세례와 인사 청탁 등의 문제를 시정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군종장교 파송 기준은 군 내 신자 수에 대비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군 내 신자 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세 경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생겼으며 또 타보직과 달리 진급의 기회가 적은 관계로 발생하는 군종장교간의 경쟁 등도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타종교에 군종장교 문호를 개방하는 병역법 시행령의 실시도 2003년 8월 1일 실시되었는데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으며 기독교계의 의견은 마치 이익집단의 목소리를 내는 것 정도로 치부돼 버리는 실정이다. 기독교계는 전국민 신자 5% 이상은 되어야 군종장교를 파송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원을 한 바 있다.

원불교 측은 군대 내 종교시설에 대한 경비를 자체 부담키로 하고 상징적인 차원에서 교세가 큰 전북지역과 논산훈련소 등 두 곳만이라도 교무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독교군목과송교단협의회(대표회장 최병곤 목사)는 국방부가 국내 3대 종교인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외의 종교단체 성직자도 형평성 차원에서 군종장교로 임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공식 면담을 통해 원불교가 기독교, 천주교, 불교에 비해 신도 수가 훨씬 적어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데도 군종장교 파견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방부가 원불교에 대해 문호를 개방할 경우 기타 군소 교단에까지 이같은 기류가 확산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기도 하였다.<sup>3)</sup>

## 2. 한국 군목제도의 미래

한국 군종장교 제도는 군종사관 후보생 규정과 군종장교요원 선발규정에 의해 후보생과 요원 두 가지를 선용하여 선발하고 있다.<sup>4)</sup>

기독교에서는 후보생을 기본으로 뽑고<sup>5)</sup> 요원을 보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천주교는 거의 99% 이상 요원제도를 선용

3) 출처: 국민일보, 기독교신문

4) 군종사관 후보생 선발 규정과 군종장교요원 선발 규정

하고 있다. 불교는 지원자를 고려해서 요원과 후보생을 혼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선발하여 2001년까지는 3사관학교에서 12주 교육을 받고 입관 후 해군·해병대 군종장교 충원은 3주간 해군화 교육을 받은 후 각 임지로 발령을 받았다.

2002년도부터는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9주의 3사관학교 교육 도중 사관후보생으로 입관 전에 일주일 동안 받고 각군 행정교육기관에 가서 받고 다시 3사관학교에 가서 입관한다. 해군·해병대에 갈 군종장교들은 위탁교육으로 일주일간 초군반이 아니라 사관 후보생 자격으로 해군화 교육을 진해 행정학교에서 받는다.

해군화 교육은 거의 해군에 대해 교육하며 해병대에 대해서는 거의 없으며 거의 대다수가 초임지를 해병대로 가게 된다.

군인사법 군종장교 임용규정에 학사자격이 있는 성직<sup>6)</sup>을

5)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총신대학교 2002년도 군종사관 후보생 선발요강 발표 “응모 자격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1학년이라면 학과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응시 원서 배부 및 접수는 학생지원과에서 하며 접수는 6월 3일에서 7일까지이다.

선발 시험은 필기와 면접, 신체 검사로 나뉘는데 필기시험은 국어, 국사, 국민윤리, 사회, 영어 5과목으로 7월 5일 9시에 우리 학교에서 실시한다. 필기 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7월 16일이며 필기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7월 30일 면접 시험을 보고 신체 검사를 받게 된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9월 30일이며, 작년에 우리 학교는 9명으로 신학대학 중 최다 후보생을 배출했다.”

군종사관 후보생이 되면 대학기 군종 장학금 50만 원이 지급되며 신대원까지 7년간 공부한 후 군대를 중위나 대위로 입관한다.

군종장교 특수성을 고려하여 목회학 석사과정에서 후보생을 뽑든지 전국의 각 목회 사명을 가진 대학교 1-2학년에게 응시 자격을 주어 우수한 자원을 선발해야 한다.

받은 후 3년의 사회 경력이 있으면 대위로 임관한다는 규정으로 2년 11개월 이상이면 대위를 달아준다. 여기에서 성직이란 국방부와 각군 인사담당 유권해석에 의해 기독교는 목사 안수 받은 후이며, 천주교는 서품을 받은 후이고 불교는 승려신분을 받은 후인데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는 학부 4년과 대학원 과정 3년을 마친 후 요원은 평균 2년 정도 후에, 후보생은 거의 졸업 후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 안수를 받게 된다. 신부 서품은 대학원을 졸업하면 바로 받으며 승려는 학부 때에도 받을 수 있어 임관할 때 군 생활과 복무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 3.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로 일원화

천주교는 군종교구에서, 불교는 조계종 군종담당에서 군종장교 관리를 일원화하고 있는 예에서 보듯 창구 일원화는 연대 군종장교에까지 목소리가 잘 전달되어 선교, 행정 보고 등 군종장교 관리 및 장기발전에 유용하다.

한국 군종장교는 종단의 일원이며 국군장교단의 일원이다. 국군장교단으로서는 국방부와 각 군본부를 통해 통제를 하지만 천주교와 불교에 비해 기독교는 한국군종목사단과 각 군종목사단과 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 12개 교단 중 소속 교단

6) 군인사법(1999.1.29 개정) 법률 제5703호 제4장 제12조 장교의 초임계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계급은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항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 신부, 승려로서 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자” 학사 이상을 석사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 성직자의 자질 및 제도에 부합하다.

총회와 노회의 통제와 관리와 후원과 협력을 하고 있다.

한국 군목의 미래는 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창구 일원화에 달려 있다.

신병교육대상과 장교후보생용, 일반 기독장병용 등 계층별 영상물 제작보급과 예배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찬양집 회프로그래프 개발과 사이버 공간에서 기독문화 개발을 비롯해 음주, 흡연, 결혼가정, 이성친구 등 테마별 기독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군종목사 재충전 과정 및 계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성지순례 지속, 대학원 과정(박사) 장학금 지급, 전역 후 목회지 연결 등이 있다.<sup>7)</sup>

군목단에서는 인사발령과 진급, 장기, 연장 등을 군선교연합회와 협의해야 한다. 교단주의가 만연한 지금의 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각 교단간의 천차만별한 지원금과 각 교단 수련회의 차별성 그리고 교단간의 각각 다른 군목단합대회 개최와 총회참석과 노회참석이 있으며 각 교단에서는 자기교단 군목을 더 군대에 보내고 연장, 장기, 진급을 위해 로비가 극심하며 객관적인 자료와 열심과 사명감 및 업무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다.

또한 각 교단에서는 다른 교단에 비해 불이익이라고 생각해서 군목 후보생에게 목사 안수를 빨리 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추진 중이다. 12개 교단간 눈치보며 목사 안수 빨리 주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라 불교와 천주교와의 경쟁과 비교 속에 불합리한 성직개념과 시기를 고쳐야 하며 신부, 법사는 상

7) 제11회 군종목사 영성훈련 세미나(2002), p.103, 한국군종목사단,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근이든 현역이든 군대만 갔다 와도 대위 임관이 되고 또는 경력이 기독교보다 훨씬 빠르기에 군 장교로서 기독교가 불리한 위치에 서 있다.

군목의 자질은 사명감과 열심 그리고 설교, 심방 등 목회방법, 복장, 출근 등 목회능력과 업무능력 등으로 파악된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중심으로 한국 군목단과 파송교단을 흡수하여 군목의 자질과 업무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하겠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 소요를 산정하여 각 기독교 신문과 국민일보에 공개모집하고 공개경쟁시험과 철저한 면접을 통해 우수한 군목 후보생을 선발해야 한다.<sup>8)</sup>

#### 4. 해병대 군종감실 부활

해군의 군종업무는 1948년 9월 15일 손원일 해군참모총장의 초빙으로 정달빈 목사가 입대하여 해군 중위의 계급을 부여 받고 정훈감실 교회과장으로 임명되어 3군 최초로 군종업무를 시작했는데, 그는 1949년 2월 5일 용산 국방부 관사 33호에서 한국군 최초로 군인교회를 창립했다.

1950년 12월 6일 해본작편 제33호에 의하여 해군 안에 정식으로 군목실이 창설되어 초대 해군본부 군목실장으로 추인 봉 군목(대위)이 취임하였고, 그 뒤 1950년 12월 21일 이승만 대통령은 각 군 안에 군종목사를 두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1950년 12월 6일자로 제정 시달된 군종업무 잠정규정을 보완하여 전문 5장 12조 22항과 세칙 7조 12항으로 된 해군

군종장교 복무규정을 법제화하였다(1951.6.22).

1951년 3월 12일 해병대사령부 교회가 창설되었으며 같은 해 6월 5일에는 해군 1기로 박창번(대위), 오봉운, 이원동, 송창설(이상 중위) 목사가 해병대 최초로 군종장교로 임관했으며 해군의 교육사정이 여의치 않아 해병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다. 1952년 5월 7일 해병특과 6기로 군목 2명이 임관했으며 동년 7월 10일 해병특과 7기로 군목(중위) 6명과 신부(중위) 1명이 임관하였다.

1955년 4월 1일 해병대 김포 전투단 교회가 창설되었다. 1955년 5월 1일 해병대사령부 교회에서 수도 탈환 기념예배를 거행하였다. 한편 해병대사령부 군종감은 초대 장덕환(문관, 1951.3.10-1951.5.26), 2대 송흥국(문관, 1951.5.27-1951.8.27), 3대 박창번 군목(대위, 1951.8.27-1952.9.24), 4대 박창선 군목(대위, 1952.9.25-1955.2.20)으로 이어지다가 1955년 2월 20일 제5대 해병대사령부 군종감으로 유영근 군목(소령)이 취임하였으며 7월 25일 해병대사령부 군종감실에서는 기관지 「불기둥」을 발행하였다. 1956년 1월 9일 해병대 교육단의 한기원 군목(대위)과 문희석 중령이 한국 최초의 기독교장교회(OCU)를 조직하였으며, 박창선 군목(중령)이 6월 8일 4대 해군 군종감으로 취임하였다.

1956년 6월 10일 해병대사령부 교회가 신축되고 1956년 10월 9일 포항해병대기지 교회가 창설되었다. 1961년 5월 29일에는 송창설 군목(중령)이 제8대 해병대 군종감으로 취임하였고, 1962년 6월 1일 해병대사령부 군종실이 군종감실로 승격되었으며 4월 17일에는 김광덕 군목(중령)이 제9대 해병대 군종감에 취임했다.

8) 현재 매년 목사 30명, 신부 19명, 법사 19명 등 총 58명을 선발하고 있다.

1963년 11월 12일에는 제10대 해병대 군중감으로 한기원 군목(중령)이 취임하였으며 11월 15일에는 송창설 군목(대령)이 제7대 해군 군중감으로 취임하였다. 1964년 11월 28일에는 김광덕 군목(대령)이 제8대 해군 군중감으로 이종영 군목(중령)이 제11대 해병대 군중감으로 각각 취임하였다. 1968년 10월 21일에는 손홍수 군목(중령)이 12대 군중감으로 취임하였으며 12월 22일 애기봉에서 대북방송 성탄예배를 실시하고 통일 제적봉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점화식을 거행하였다. 1969년 12월 5일 해병대교육기지 교회 신축, 12월 18일에는 애기봉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점화식을 가지고 대북방송 성탄예배를 실시하였다.

1973년 2월 15일에는 주계명 군목(중령)이 해병대 제14대 군중감으로, 4월 10일에는 김용원 군목(대령)이 해군 군중감으로 각각 취임하였으며 12월 8일 해병대11연대 교회를 신축하였다.

1973년 10월 10일 해병대사령부 해체로 해병대 군중감실이 해군에 병합되었다. 1974년 11월 20일 고용수(현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 군목의 편집으로 “해군 기도서”가 3,000부 발행되었다. 1973년 10월 10일 해병대부대가 해군에 통폐합되면서 6명의 인원이 감소되어 30명의 인원을 33명으로 증원하였고 35명을 운영했다.

1976년 7월에는 청룡부대에 부임한 양해범 중대장이 이승환 군목(대위)과 더불어 군의 정신전력 강화는 철저한 신앙에서 이룩될 수 있다는 확신 아래 예수중대를 만들어 성공적인 지휘사례로 인정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부대 전체가 신앙으로 무장해서 놀라운 전투력을 나타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

었다.

지금까지는 해군 특교대에서 교육을 받고 임관했으나 1979년부터는 국방부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각군에서 실무교육을 1개월 받고 임관하도록 제도가 바뀌어서 3월 2일부터 7월 30일까지 교육을 받고 군목 4명, 신부 1명, 법사 1명이 군중 1기로 임관했다.<sup>9)</sup>

2003년까지 군중장교는 국방부 통합교육으로 61기까지 배출되었으며 공군과 육군은 통합적으로 61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오직 해군만 1979년 이전에 임관했던 선배 기수를 무시하고 1979년부터 임관한 기수를 군중 1기로 하여 2003년 임관 기수를 군중 25기라고 하며 해군 공식문서에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해군과 해병대 역사를 살펴보면 해병대가 모든 면에서 선봉이 되어 우수한 군중활동을 하였으며 해병대사령부에 군중감실과 군중감이 있어서 오히려 해군보다 병력 수도 많고 지역도 방대하기에 군 신앙전력화에 헌신해 왔다.

해병대는 다시 1987년 부활이 됐건만 군중은 행정편의주의로 인하여 해군본부 군중감실에서 총괄하고 있다. 그리하여 군중은 해군 소속이 되어 해병대에 가서는 해병대 복장만 입은 채 업무를 하고 있다. 해병대 군중장교들은 본인들의 정체성을 해군이라는 마음으로 군중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해병대 복음화에 커다란 장애가 아닐 수 없다. 명찰만 빨간 명찰을 달았다고 해병대 병사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선교방법대로 그들속에 들어가 인카네이션

9) 군중장교 초군반 학습지침서, 2001. 해군교육사령부 행정학교 p. 2-12.

(성육신)했던 체휼의 방법으로 다가가려면 머리도 해병대와 같이 깎아야 하고 모자도 팔각모를 쓰고 다녀야 한다.

해병대 군중감실이 없기에 해병대 군중업무는 해군에 비해 극히 위축되고 약해져만 가고 있으며 해병대 초도보급품은 하나도 없이 해군 것만 모두 초도보급을 하기에 해병대에 부임한 군중장교는 많은 개인 돈을 들여 해병대 복장을 다시 준비해야 한다.

해병대 사령부의 군중감실을 반드시 부활시켜 해군과 많은 면에서 성격이 다른 해병대만의 군중장교들이 있어서 해병대 군중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며 해군본부 군중감실의 방만한 인원과 예산을 해병대 사령부 군중감실에 편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단급 이상이거나 군중장교 3명 이상이면 군중통합 사무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sup>10)</sup> 없는 곳이 많이 있다. 정훈실에 정훈참모가 있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군중실을 설치하여 인사에 소속된 군중장교, 군중과장, 군중실장이 아니라 모름지기 지휘관의 특별참모인 군중참모의 위상을 반드시 찾아야 하겠다. 또한 군중은 인사와도 가깝지만 오히려 정훈과 더 가깝기에 정훈 쪽과 긴밀한 협조공조 속에 반복되거나 낭비가 없어야 할 것이다.

해병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중장교는 정체성이 없으며 국

군장교단의 일원으로서 해군의 통제를 받고 있다. 앞으로 해병대 군중장교는 해병대 사령부 군중감실에서 통제하고 관리하며 교육하고 보고받는 해병대 군중장교와 군목의 정체성 회복과 해군보다 빨랐던 군중감과 제도를 과감히 부활하여 예수정신과 해병대 정신으로 낙후되어 가는 해병대 복음화에 박차를 가하여 해군복음화, 전군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야 한다.

### III. 결론

우리 기독교는 개혁주의적이다. 군대교회와 군인신자와 군종장교의 개혁 없이는 복음화는 더욱 후퇴할 것이다. 집안싸움에서 벗어나 기독교군선교연합회를 통한 군복음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해병대 사령부 군중감실 부활을 통하여 이 땅과 전세계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가야 하겠다.

10) 해군규정 12권 군중규정(전 평시용) 제2장 군중업무 제9조 군중장교회의 및 통합사무실 운영 4항 “각 부대장은 중단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참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함대급 사단급 이상 부대와 군중장교 3명 이상 보직된 부대에 군중통합사무실을 설치 운영한다.” 1978.3.16(제1호) 제정, 1999.7.22(제545호) 개정, p.12-17.